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5.15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산업계

- "친환경 소재로 수소·배터리 잡는다"...코오롱인더, 수소 밸류체인 정조준 ('25.5.14. 파이낸셜뉴스)
 -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고분자전해질막 (PEM)과 막전극접합체(MEA)의 적용 대상을 기존 수소차에서 건물용 발전시장까지 확대하며, 수소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음
 - 기존 수소차용 수분 제어장치에 더해 PEM·MEA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, 고정형 발전용 연료전지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음
- "수소차 충전, 더 빠르고 쉽게"...고양·성남시에 첫 액화 충전소 설치 ('25.5.13. 아시아투데이)
 - 한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한 액화 수소충전소 '고양 대화 충전소'와 '성남 사송 충전소가 최근 본격 운영을 시작함
 - 액화 수소 충전은 기체 수소 충전 방식과 달리 압축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충전 속도가 빠르고, 설비 용량이 큰 충전소는 중간보충 없이 연속적으로 더 많은 차량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음
- 수소 충전 플랫폼 '하이케어', 서비스 리뉴얼 출시('25.5.14. 조선비즈)
 - (주)카참하이케어가 국내 유일의 수소차 충전 플랫폼 '하이케어 (H2Care)를 전면 리뉴얼함
 - 하이케어는 전국 단위 실시간 수소충전소 정보(영업·고장, 잔량,

완충 가능 대수, 판매가격, 긴급제보, 예약, 통합검색, 대기차량 수, 즐겨찾기 알림 등)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함

- 서울에너지공사, JNK글로벌, 효성중공업, 하이넷, 린데코리아 등 주요 수소충전소 사업자에 CRM 솔루션을 공급해 충전소 업무의 디지털 전환(DX)에도 기여함

□ 지자체

○ **군산시, 올해 전기·수소차 593대 보조금 지원**(‘25.5.14. 가스신문)

- 군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‘2025년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지원사업’을 본격 추진함
- 총사업비는 190억원이며, 전기·수소 차량 총 593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

□ 기관

○ **롯데케미칼-한국중부발전, 재생에너지 개발·공급 위해 맞손**(‘25.5.14. 머니투데이)

- 롯데케미칼은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‘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함
- 이번 협약은 양사가 국내 신재생 발전소의 성공적인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추진을 통해 양사의 RE100 목표 달성을 실현하고,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

□ 국회

○ **이재명 "세계 선도하는 해양강국 만들겠다"...조선업 공약 발표**(‘25.5.14. 조선일보)

-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스마트 미래 선박 시장 선점,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공약을 발표함
- 스마트·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LNG선박과 전기선박의

경쟁력을 높이고, 메탄올·암모니아·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밝힘

□ 기획

- [탐방] 'K-수소·LNG 인프라' 선봉에 선 한국가스기술공사(25.5.14 이투뉴스)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○ 프랑스, 수소 포함한 연료 탄소강도 인센티브제(IRICC) 초안 공개(FuelCellsWorks, 25.5.13)

- 프랑스 정부는 기존 TIRUERT 제도*를 대체 가능한 IRICC 초안을 발표하고, '25년 6월 10일 공공 의견을 수렴**했음

* TIRUERT 제도: 프랑스 정부가 RED II 지침에 따라 수립한 기존 수송 연료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보조 및 의무 제도로, 바이오연료 중심 지원체계

** 공공 의견 수렴 개요

항목	주요내용
기간	25년 5월 13일 ~ 6월 10일
주요내용	- 수송 부문에서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수소의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1.5%로 설정 - RFNBOs(재생 가능 비생물학적 연료)의 단계적 도입: 2026년 0.1%에서 2035년 2%까지 -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의 합성 연료 사용 목표 설정 - 할당량 미달 시 GJ당 €80의 벌금 부과
주요쟁점	- 수소 할당량의 적정성: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2030년까지 1.5%의 수소 사용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고, 0.8%로 조정 제안 - 벌금 수준: 할당량 미달 시 부과되는 벌금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우려 제기 - 합성 연료의 정의: 합성 연료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 - 수소 생산 방식의 인정 범위: 재생 가능 수소와 저탄소 수소의 구분 및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성 요구

- 이 제도는 EU RED III 지침(재생에너지 지침 3차 개정안)*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, 수소를 수송연료 탈탄소화의 중심축으로 명문화한 첫 제도적 시도임

* 유럽연합(EU)이 2023년 개정·발효한 제3차 재생에너지 지침으로, '3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의 최소 42.5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, 수송·산업·건물 부문별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강화하는 법적 틀 제공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QIMC - BTEG, 미국 내 천연수소 프로젝트 확대 위한 'Orvian 이니셔티브' 출범(FuelCellsWorks, 25.5.13)

- 캐나다 천연수소 탐사기업 QIMC*와 에너지 인프라 기업 BTEG**는 미국 전역에 지역 단위의 천연수소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위해 공동 개발전담법인 Orvian Natural Resources I LLC***를 설립함

* QIMC: 캐나다의 자원 탐사 및 청정에너지 기술 기업으로, '천연수소 (Natural Hydrogen)'와 고순도 실리카 자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 솔루션 개발 기업 / 고순도 천연 수소 발견 및 평가 노하우, 지하 물리탐사 알고리즘, 탐사 모델 특허(IP) 확보

** BTEG: 에너지·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기반의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, 수소·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개발(PPP 및 SPV 구조)에 특화된 투자 및 전략 운영 역량 보유

*** 개발 전담 법인(Special Purpose Vehicle, SPV):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목적 특화형 법인으로, 모회사와는 독립된 재무·법적 구조를 갖춘 운영체

- 본 이니셔티브는 QIMC의 탐사 기술·지하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, 천연 발생 수소의 개발·상용화 가능성을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증하려는 전략임



Orvian Natural Resources I LLC

Building a Hydrogen Economy

Sustainable Natural Clean Hydrogen Projects in United States of America

0 H₂



QIMC
MATERIALS CORP. (QIMC:CSE QIMCF-OTC)

BLACK TREE ENERGY GROUP

COPYRIGHT MAY 2025

자료: Orvian Natural Resources